

이슈 코멘트: 국내 증시 약세

Summary

- 17일(화)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코스닥 1%대 약세
- 달러/원 환율 전일대비 8.7원 상승한 1340.50원 기록
- 외국인 현·선물 동시 순매도에 따른 수급 약화

연초이후 국내증시 약세 흐름 이어져

• (그림1, 2) 2024년 들어 국내증시 약세 흐름 지속. 오늘까지 포함해 12거래일 중 이틀을 제외한 10거래일이나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하회. 같은 기간 달러/원 환율은 52.4원이나 상승하며 1,340.50을 기록. 최근 이 같은 국내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 정도 요약 가능.

1) 기관 수급 약화

(그림3) 올해 들어 기관은 약 7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 중.

(그림5) 이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5조원 정도가 반도체에 집중. 특히, 국내 기관은 운송, 디스플레이,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증시 하락을 견인. 반면, 외국인은 2.1조원, 개인은 5.1조원 매수 우위의 모습 보여.

(그림6)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은행(-2.2조원)과 금융투자(-0.7조원)가 매도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최근 있었던 블록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

2) 이익 모멘텀 약화

(그림4) 지난 9일(화) 삼성전자 4분기 및 2023년 잠정실적 발표 이후 이익 모멘텀 약화도 투자심리 위축. 국내 상장사 기준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83.5조원에서 179.4조원으로 약 2.2%, 2024년의 경우 276.5조원에서 271.2조원으로 약 1.9%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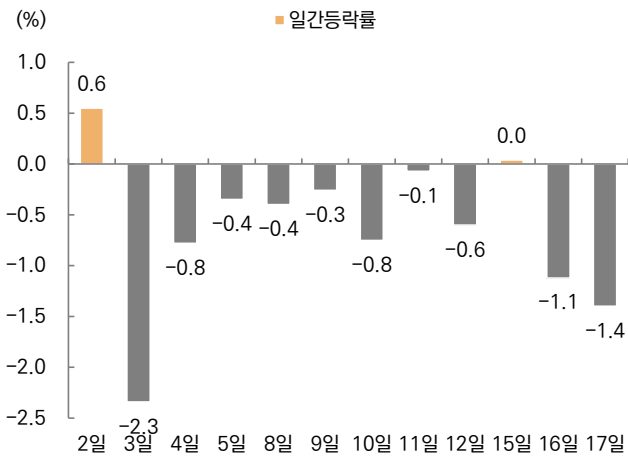
3)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

(그림7) 지난 해 10월 초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그 '대리전'도 격화되는 모습. 최근 세계 주요 무역항로인 홍해-수에즈 운하의 길목인 밥엘-만데브 해협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반(反) 이스라엘 상선 및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 또한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가중.

(그림8)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외에도 국내 대북 리스크도 최근 확산되는 모습.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주적(主敵)으로 헌법에 병기하였고 그 동안 소통채널로 여겨졌던 주요 기구를 폐지. 또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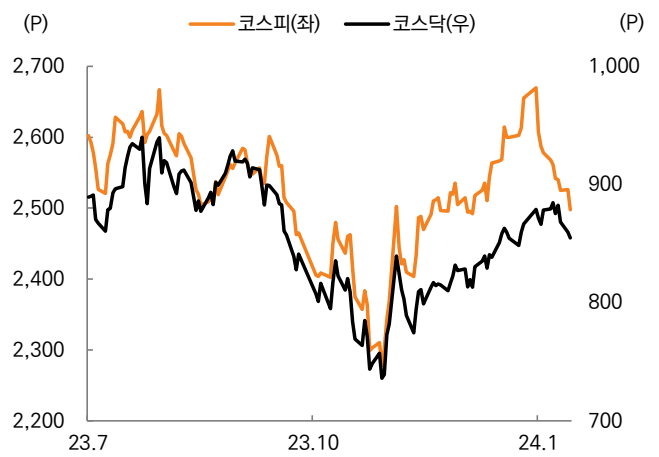
• 결국, 당분간은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

그림 1. 코스피 연초이후 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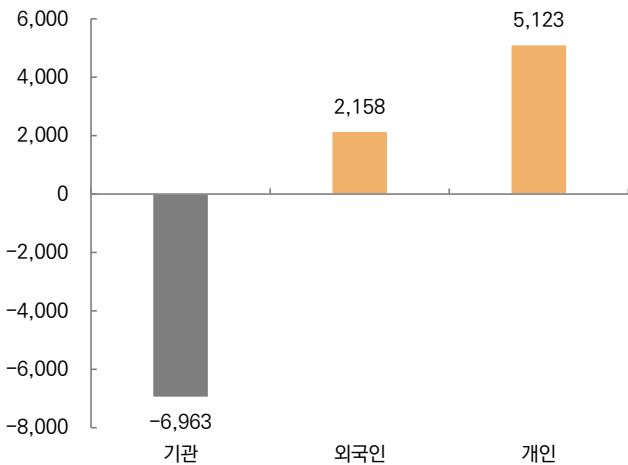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17일 오전 10시 기준

그림 2. 국내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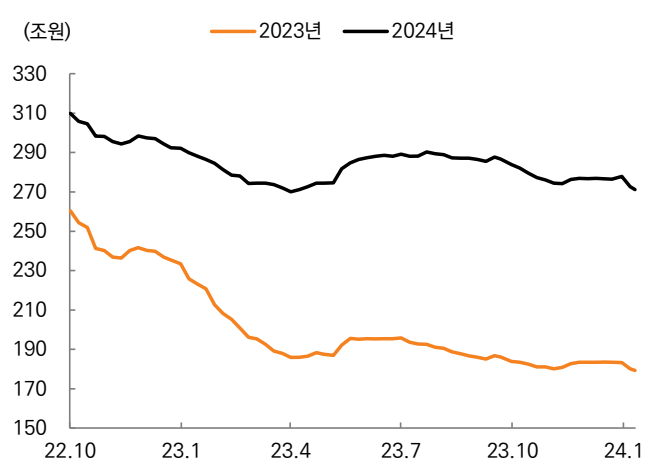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수급주체별 연간 누적수급(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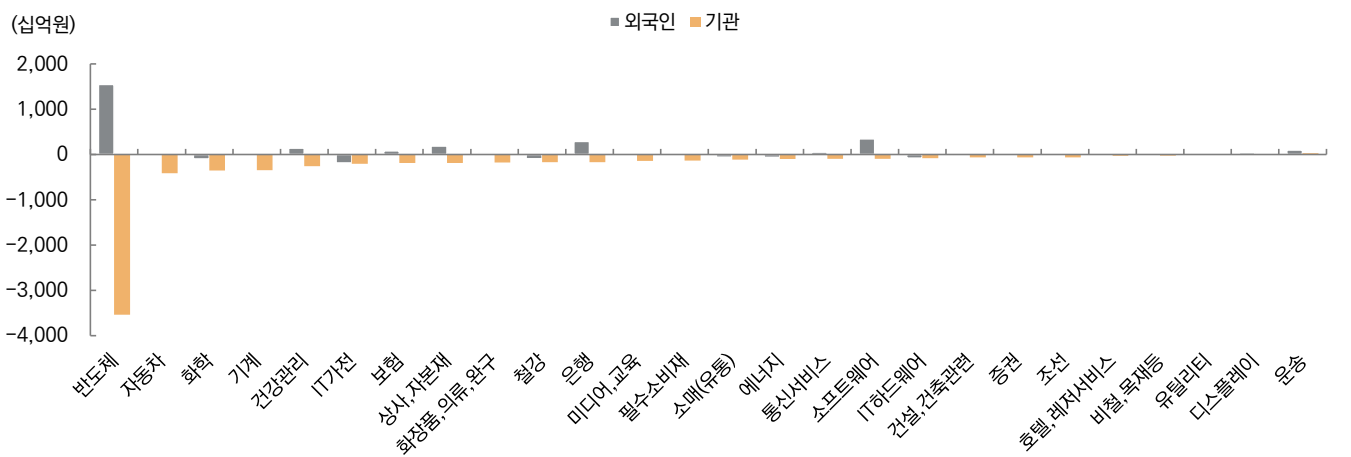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국내증시 이익 모멘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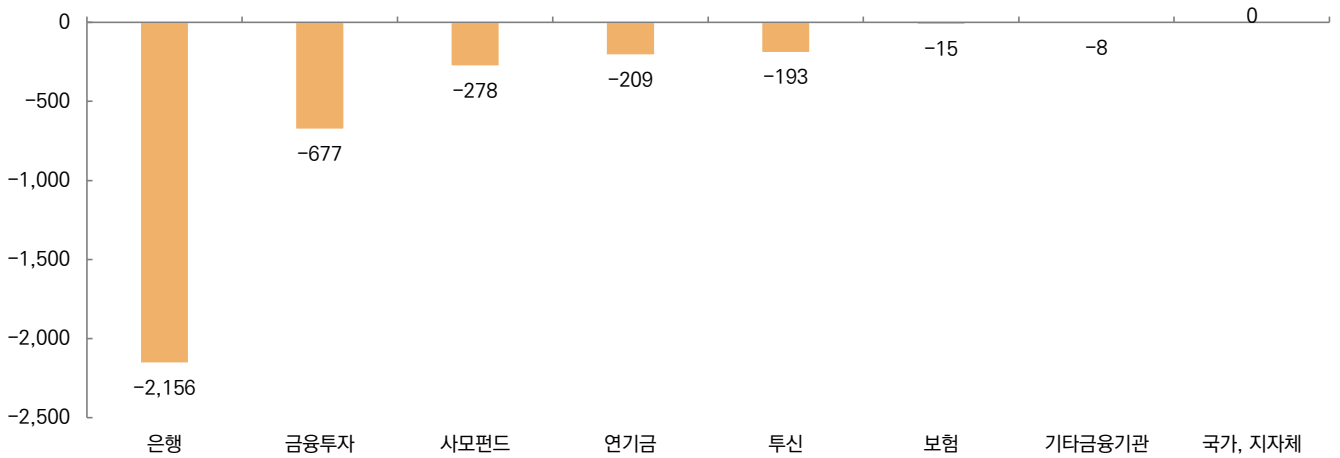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기준

그림 5. 업종별 연간 누적수급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6. 반도체 업종에 대한 국내 기관별 연간 누적수급(십억원)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7. 해상운송의 요충지: 홍해, 호르무즈해협



자료: 구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8. 다시 불거진 대북(對北) 리스크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2024년 1월 14일
<p>1 활공 비행 전투부 (활공체)</p>	<p>2 초기발사방위각에서 목표발사방위각 120km 측면 기동, 비행거리 700km로 좌우 변칙 기동 기술 적용 주장</p>	<p>3 활공 비행체(HGV)가 분리되어 요격 미사일 회피하는 선회 기동 활강 시험</p>	<p>4 11월 14일 2단 엔진 지상 분출 시험 2023년 11월 11일 1단 엔진 첫 지상 분출 시험</p>
<p>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 발사, 액체연료를 담은 용기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연료 계통 '앰플화' 첫 도입</p>	<p>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 발사, 합동참모본부 약 1,000km 비행 후 탄착 분석</p>	<p>*북, 고도·사거리·제원 등 식별 가능한 정보 공개하지 않음</p>	
<p>연합뉴스 사진: 조선중앙통신</p>			

자료: 연합뉴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